제685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2년 6월 16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임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이형수

2002년도 제2회 청지기훈련(Steward Training)

"수치, 전통 그리고 전환"

첫째 날(6월 12일) : 수치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케 하사"

도대체 수치스러운 얼굴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자들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질병, 재앙과 같은 운명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에 가장 수치스러움을 맛보게 될 불쌍한 자들이다(15~16절).

그러나 수치스러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한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한다. 그것이 진실인가? 그렇다. 인류의 역사에서 타락하고 수치스러웠던 기독교 신앙은 신자들의 삶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났었다. 혹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며 돈벌이에 몰두하던 자들이 고향에서는 존경받는 신자였던 중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자신은 축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직원들은 일터로 몰아가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는 오늘날의 신자들의 삶이 그 증거이다. 만일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 몇 가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본 적이 있었는가?" "당신은 주님의 은총과 죄의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수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누가복음 15:15~18에 나타난 탕자의 삶과 당신의 삶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또한 우리의 삶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해야 할 인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에 그 수치스러움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수치스러움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후 심판의 날에는 가장 큰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은,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분명히 드러나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계 6:14~17).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스러워하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그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수치스러운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수치스러운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분은 외식자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세리와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디 그뿐이랴! 우리는 탕자가 세상의 수치스러움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신비로움이다. 그리므로 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지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문을 지나서 수치스럽게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여호와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수치스러움에 대해 눈가림으로 외식하든지, 죄를 고백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벗어버리든지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요 책임지야 할 선택이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림을 받았으나 이를 갈고 돌을 던졌던 자들! 성령이 지적하는 수치스러움을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닫지만 정작 중도(中道)의 길을 걸으면서 머뭇머뭇하는 악삐뜨리아오디게아의 사데와 같은 자들! 그들은 여전히 수치를 얼굴에 담고 사는 자들이요, 마지막 날에 세계의 지존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이다. "그 날에 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빌후 3:10~13). 그리므로 자신의 영혼 감옥이 잠자는 수치를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라. 그가 우리의 수치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기억하라. 절대로 절대로 그분에게 우리의 자랑은 필요치 않으며, 우리의 자부심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치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그의 피로 씻기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둘째 날(6월 13일) : 진통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사 66:7~9)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이다. 그는 장차 포로가 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시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수치스러운 날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을 겪으리라.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교회는 신자든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통을 겪어야 한다. 그것은 아이를 낳는 여인이 진통의 순간을 자나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숫자에 의존하는 물량주의가 아니라, 회개에 의한 영적 탄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통' 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박으로 말미암은 진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출애굽을 하였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죄악으로 인한 진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았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진통을 겪은 후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한 통곡과 탄식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초대교회에 찾아온 팀박으로 말미암은 진통, 그 고통은 순교와 교회의 확장으로 이어졌고, 교회 역사에서도 루터(Luther)의 탄식과 말씀으로의 복귀를 향한 진통은 종교개혁을 낳았다.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

영적인 거듭남을 위한 진통은 지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교회와 신자의 영혼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중생을 위해서는 부모의 진통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의 진통이 필요하다. "혜루살렘의 딸들아 ~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또 다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해산의 진통이 없으면, 탄생의 기쁨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그 동안 '충현교회'가 진통과 각성의 시간들을 보냈고, 주께서 베푸시는 참된 부흥을 맛보고 있다. 하나님 중심의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고, 강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복음만이 선포되고 있으며, 올바른 헌금의 사용으로 5대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 없이 구주를 섬기는 교회로의 탈바꿈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진통'은 더욱 큰 열정으로 확산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참된 헌신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참된 각성,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진통을 피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있는 자들이요,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에서 떠난 자들이다. 자기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진통도 없는 자들이요, 십자가를 늘 피해 다니며 천국을 훔치려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진실로 모르는 것이 있다. 진통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며(마 5:4), 진통은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린석은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여인에게 임한 '진통'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듯이, 교회와 신자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겪어야 할 진통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나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으며, 교회가 자신들을 끌고 가야한다는 사실을 깨닫득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통을 피하려는 게임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진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영혼을 임신하고 해산하는 진통,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셋째 날(6월 13일) : 전환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 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신 4:29~31)

애굽에서 진통을 겪었고, 또 다시 광야에서 죄에 빠지는 수치스러움과 한 세대가 바뀌는 진통을 겪은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확인한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 또 다시 환난의 시간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수치와 진통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멸망으로 치닫는 수치스러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에게로 전환하게 되리라.

'네가 거기서'

'네가 거기서'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끝 날에'(30절)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 날은 본문 25절~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서 떠남으로 겪게 될 멸망의 시기이다. 역사적으로는 갈대아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시점이요, 타락과 실패와 용서받을 수 없는 처절한 끝 날이며, 그 어떤 도움도 사라진 절망에 빠진 그 날이다. 그러므로 그 끝 날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날'이다.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분만이 그들을 멸망에서 회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그 날에 주께서 수치와 진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환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 날에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께 나아오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수치스러운 죄의 고백,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진통,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필요할 뿐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끝 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죄인이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다. 오직 그들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불순종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랴! 오늘날에도 주를 만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은 수치와 진통의 날, 그 끝 날에 주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비하심 때문이며, 그 공익로운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값을 기억하라. 용기가 필요하다. 죄인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라. 수치와 진통을 넘어서서 죄인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품에 안으시는 주께로 전환하라. 계속되는 초청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더 이상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Sermon for next week

Face of Jesus (Isaiah 50:4~9)

"…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will contend with Me?
Let us stand up to each other; Who has a case against Me?
Let him draw near to Me. Behold, the Lord God helps Me; Who is he who condemns Me?
Behold,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The moth will eat them"

The heart of Jesus is soft, modest, warm, kind, and lovely, but His face is like flint. During His earthly ministry, He didn't avoid or escape the attacks and afflictions meant for Him. The Bible tells us, "When the days were approaching for His ascension, He was determined to go to Jerusalem" (Lk. 9:51). His face was like flint. The way of the cross was before Him, but He didn't change direction. Even though no one helped Him and many hurt Him, He still followed God's way. In other words, Jesus appeared really weak, but He was determined to do God's will nonetheless. Despite the ill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He had to face, He never turned away. Jesus' strong determination to go God's way should encourage us all in our walk with God.

Jesus' steadfast resolve was tested. His determination is clearly mentioned in today's passage, and by many an ordeal His declarations were justified. He was tested by the offers of the world. Remember how Satan proposed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to Him? He didn't compromise. Remember how He entered Jerusalem on a donkey with the crowds welcoming Him as a king? He could have easily become a famous leader, but He didn't. Remember how Peter and His disciples rebuked Him for wanting to take the cross? Remember how His family and friends tried to persuade Him to take a different course? But Jesus didn't sway, His face was like flint.

Jesus' steadfast resolve was tested by the unworthy actions of his friends. The one who ate bread with Him betrayed Him. His disciples forsook Him and fled. The whole race conspired to put Him to death. But His face remained like flint. Even the bitterness which He tasted at His entrance upon His great work as a sacrifice tried His determinatio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 mockery, and the accusations were all sharp commencements. Many would shrink when such fire came upon them, but Jesus stood firm. Think of the people who hurled abuse at him during his suffering. Those who passed by, saying,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rebuild it in three days, save Yourself". The chief priests, scribes, and elders, saying,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He is the King of Israel; let Him now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The soldiers, saying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The robber hanging beside Him, saying, "Are You not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Such remarks would cause many to bend, but not Jesus.

Jesus' steadfast resolve was even tested by the ease at which He could have abandoned the cross. Pontius Pilate could have released Jesus if He pleaded. Legions of angles would have come to His rescue if He asked. He had the power to come down from the cross Himself. He was not held to His work by inability to quit it, but only by the love which is strong as death. Amen! He said, "If it be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The impossibility lay in His resolve to redeem His people and to do God's will.

With all the various trials and tribulations Jesus encountered, how was He able to sustain His steadfast determination? Today's text tells us, "The Lord God has given Me the tongue of disciples, That I may know how to sustain the weary one with a word. He awakens Me morning by morning, He awakens My ear to listen as a disciple" (v. 4). Jesus had divine schooling. His father taught Him what He needed. Jesus listened to His Father, "The Lord God has opened My ear; And I was not disobedient, Nor did I turn back". Jesus had faith in the Lord God, "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will contend with Me? Let us stand up to each other; Who has a case against Me? Let him draw near to Me. Behold, the Lord God helps Me; Who is he who condemns Me? Behold,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The moth will eat them" (vv. 8&9). With God's help, Jesus wanted to be a witness. In John 19:30, we read, "Therefore, when Jesus had received the sour wine,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Isn't Jesus' determination wonderful? Jesus finished everything God had for Him because God had given Him everything He needed.

We need to learn from Jesus so that we can imitate His determination. Our lives as believers need to be like Jesus. The purpose of life is to glorify God. We learn from the Word of God. Just as God taught Jesus "morning by morning", so too, we must learn. Out schooling in these matters can't come from humans or experience, but only from the Word of God. God must be our Teacher. Whether our lives are passive or activ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practice perfect and complete obedience. When we are obedient, we will have the courage and bravery of verse 6, "I gave My back to those who strike Me, And My cheeks to those who pluck out the bread; I did not cover My face from humiliation and spitting." Our bold confidence comes from Jesus Christ.

My dear Choong Hyun friends, our lives must be one of faith, just as Jesus' life, "Who is among you that fears the Lord, That obeys the voice of His servant, That walk in darkness and has no light? Let him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and rely on his God" (v. 10). Amen. We must trust in His name and rely on Him so that our confession after we finish this life can be, "It is finished". Like Jesus, our face needs to be like flint. Why? Because God has concluded, "Behold, all you who kindle a fire, Who encircle yourselves with firebrands, Walk in the light of your fire, And among the brands you have set ablaze. This you will have from My hand: you will lie down in torment" (v. 11).

If we hold to obedience, we will have the best outcome. Indeed, to the world it make look like we are weak or failures, but if we have total obedience we will be able to pray, "It is finished"! Jesus' face was always like flint. Why? Because He learned from God the Word of God. He relied on God. Jesus never compromised for worldliness, He always lived in total obedience. Perhaps His actions on the way to Calvary appeared inept, but the result was that the scoffers went to hell. Often times in this world Christians compromise with the world over little things. Look at Jesus. His heart was soft but His face was like flint. He lived His life with everyone against Him, but He did not change. He had the power and the resources to go anyway He wanted, but He chose to totally rely on God. As such, His face was like flint.

다음 주일 설교

예수의 얼굴 (사 50:4~9)

김 성 관 목사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부싯돌과 같이

예수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하며 따뜻하고 친절하며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단단한 부싯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고통을 모면하려 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그의 얼굴은 단단한 부싯돌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님 앞에 놓여있었지만, 그분은 그 길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분을 찌를 자들로 가득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정말로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고통을 직면하셔야 했으며, 결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한 예수의 굳은 결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심

예수의 단호한 결심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결심은 오늘의 본문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에 의하여 그의 선언은 정당화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관리들에 의해 시험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세상의 왕국과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을 예수께 제안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쉽게 유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를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께서 다른 길을 갈 것을 설득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얼굴은 굳은 부싯돌과 같았습니다.

배신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으심

예수의 단호한 결심은 동행하던 친구들의 천박한 행동에 의해 시험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한 제자는 그분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죽음 가운데에 내몰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여전히 부싯돌과 같으셨습니다. 주께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맛보셨던 쓴 고통도 그의 결심을 시험하였습니다. 겟세마네의 동산, 조롱 그리고 고발당하신 것은 모두 지독한 아픔의 시작이었습니다. 불 같은 시련이 닥칠 때, 많은 이들은 움츠러들지만 예수께서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셨습니다. 주께서 고난 당하시는 동안에 그분을 향해 사정없이 조소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막 15:29).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 군병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눅 23:37). 주님과 함께 양쪽에 달린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 이러한 비평들은 결심을 돌이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일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심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포기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유혹받으셨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안일하게 십자가를 단념할 수도 있는 시험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항변하셨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요청하셨다면 천군 천사는 그분을 구원하러 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죽음처럼 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불가능한 일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의 결심 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시련에 맞서심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모든 고난에 맞서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유지할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4절). 예수께서는 신적인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께 필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또한 예수께서는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8,9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께서는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의 결단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배워야 함

우리는 예수에게서 결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 신자로서 우리의 삶은 예수와 같아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수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훈은 인간이나 어떤 경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탁월한 선생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우리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6절에 나타난 것처럼 용기 있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담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함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예수의 삶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10절).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신뢰해야 하며,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마친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처럼, 우리의 얼굴도 부싯돌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11절).

주님의 얼굴을 닮아야 함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거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의 얼굴은 부싯돌과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대로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언제나 전적으로 순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아마도 갈보리 길을 걷기 위한 주님의 행동은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웃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주 세상의 보잘 것 없는 것에 타협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은 부드러우나 그분의 얼굴은 부싯돌과 같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의 유혹을 받았으나 결코 그 결단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능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계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부싯돌과 같습니다.

물 떠온 하인만 아는 비밀

이 복 희 (집사, 11교구, 몽골단기선교단원)

물 떠온 하인만이 알고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십 년 전, 단기 선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나만이 알고 있는 은혜가 있기에 선교지를 향하여 떠날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기대하곤 한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었다.

사역지인 몽골의 동북부 지역 '초이발산' 까지 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았다.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열 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 사역지로 가다가 밤이 늦어 중간지점인 '온다라항' 이란 곳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되었다. 밤은 어둡고 처음 와 본 썰렁한 지방 도시에 아는 사람도, 미리 예약해 둔 숙소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기도만이 있을 뿐이었다. 호텔이라야 움막에 나무판으로 만든 침상뿐이지만 그나마 열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었다. 이 방인을 처음 본 주민들이 10여 명 모여들었다. 그 때 텀장의 기발한 한 마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밤 우리들을 재워주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빈 방이나 창고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렇게 하여 찾은 그날 밤의 잠자리는 냉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물 떠온 하인만이 알고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날 또 다시 열 시간 동안 '훤티' 와 '도르놋' 지방의 평야를 건너 드디어 목적지인 '초이발산' 에 도착했다.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나요? 주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다. 힘든 여정으로 입술이 부풀었지만, 다음날부터 우리들의 사역은 시작되었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울찌'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는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던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라마 불교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상해 본다면, 이러한 기도부탁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나 그 중 '초이발산' 역에서 만난 30세 전후의 초췌한 여성인 '감미르' 를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서툰 몽골어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자 자매는 예수를 영접하고 결신하였다. 전도지를 전해줬을 때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던 자매의 미소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들은 가서 전하라 하여 이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도 복음이 심겨지게 하소서!

'초이발산' 을 떠나던 아침 하늘에는 영롱한 무지개가 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났던 많은 몽골의 영혼들을 구속해 주실 것을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음이리라 생각해 본다.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은혜를 몽골에서도 간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구 삼아 하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단기선교를 위한 이 · 미용 교실 개최

1. 일시 : 6월 17일(월)~19일(수) 10:00~14:00
2. 장소 : 제2교육관 1층
3. 대상 : 이 · 미용사역을 준비하는 단기선교팀
4. 인원 : 40명(선착순 마감)

단기선교소식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5교구 선교팀이 지난주 12일(수)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팀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우즈베키스탄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십자가에서 5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의미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그 목적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 편에서나 하나님 편에서나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곧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요 10:11). 이와 유사하게, 예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라고 하셨다. 사도들은 이 단순한 개념을 택하여 그것을 반복해서 말했으며, 어떤 때에는 그 말의 이 인칭을 일 인칭으로 바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벧전 3:18).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로운 목적은 우리의 화목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속 · 용서 · 건져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향유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은사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그 은사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였던 것이다. 넷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즉, 그의 죽음과 우리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의 죽음을 자연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형벌의 사건으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므로 죽을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값인 죽음을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2002 충현단기선교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 4

단기선교, 어디로 가야하나?

이미 개척한 혹은 다른 사람이 개척하고 있는 땅을 개척의 대상으로 품는 개척자는 아무도 없다. 진정한 개척자는 아무도 개척하지 못한 지역에 들어가 미래의 개척될 그 지역의 모습을 상상하며 개척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우리 충현교회의 단기선교 방향과 원칙은 지난달 12일과 26일 주간충현에 소개했듯이 '개척선교' 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거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을 선교지로 선정하고 그곳을 품고 기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척자 정신이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10,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는 이러한 곳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미 복음이 있는 곳을 '사역지' 라 생각하며 그곳에 선교사나 단기선교팀을 파송한다. 사실 선교사들의 도움 안에서 단기선교를 진행한다는 것도 이미 그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간 곳이나 전해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척선교' 와는 거리가 있다. 어차피 선교사들도 자신의 사역영역이 있기에 그곳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60억의 인구 중 아직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막힌 곳에 사는 사람들이 20억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나머지 40억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다. 20억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들어본 사람들이고 나머지 20억은 그래도 이 그리스도를 믿거나 들어본 사람들 근처에 살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하는가? 간단하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가시고 싶어하실 곳을 가면 된다. 그곳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일까? 어느 정도 사역이 안정되고 문화충격을 덜 받는 곳일까? 남들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어렵게 다니시고 죄인의 집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곳으로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거나 선포되고 있는 곳은 이미 복음을 들은 그곳 사람들과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맡기자.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먼저 '찾고' , 그들의 필요를 '연구하고' ,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사역지를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척자 정신' 에 입각한 단기선교이다.

수련회를 마치고 …

청년1부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주제 아래
6월 5~6일에 은혜로운 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귀하고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지체들이 느낀 것을 간단히 쓴 것입니다.

♥ "하나됨에 대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나의 마음 속은, 수련회에 오기 전에 회사와 가정에 두고 온 교만과 오만과 위선과 자고함과 분냄과 게으른 영혼에 대한 회개의 기도로 가득 찼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았던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왔다."

♥ "나의 게으른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됨'을 너무나도 방관해왔음을 알게 되었고 성기기를 싫어하는 나약함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평생을 살기로 결단한 이상 날마다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가다록 처절하게 싸우는 '결심'이 필요함을 마음 깊이 새겼다."

♥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여 내 앞날의 10년 후, 1년 후, 단 한 순간도 계획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날 드리고 내 여생을 맡도 벗어놓길 간절히 소망한다."

♥ "내 안에 많은 절림이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나의 못된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온유, 겸손, 인내, 용납을 더욱 성실히 구해야겠다."

♥ "과연 사회나 세상에서 나를 보고 빛과 소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은 단언하건데 없다. 수련회는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웠고, 공동체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계기를 갖게 해 주었으며 주 안에서의 교제가 왜 필요한지 지식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대하고 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랑하고 종노릇하며 기도에 힘쓰고 남을 격려하며 찬양하고 짐을 지며 용서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홀로된 하나가 아닌,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수련회를 통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도록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조금씩조금씩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다짐해 봅니다."

♥ "처음 상추쌈을 먹여줄 때의 어색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쉴 새 없이 서로 입에 넣어 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억지로 시켰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감사하다. 우리끼리도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는 말씀에 예전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 "주님께 사랑 받기를 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살고 싶다."

♥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님은 친구처럼 다가와 주셨고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게 하셨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쉽게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좋은지 세상에서 주는 사랑, 기쁨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내 모습이 아닌 내 안의 주님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 "그 동안 너무 무심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했음을, 사랑하기 싫어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며 이제는 종더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며, 기도하며, 격려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라구요?

문 성 옥 (청년1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라며 눈물 흘려 기도하던 나는 옆 친구를 생각하며 "주님, 괜찮은 친구가 여기 있사오니 이 친구를 써 주소서"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면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너'만 하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안위하던 나였다.

선배들과 친구들이 선교를 떠날 때마다 "역시 너는 대단해! 기도할게"하며 남의 일로만 여겼던 선교!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선교라는 것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와 나의 마음을 매일 두드렸다. "하나님! 저도 가라구요?" 그 때마다 "난 아니죠? 하나님! 저 아니죠?"하며 반문했다. 그런 내가 이젠 선교를 마음에 품고 적극적으로 CMTC, 언어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터키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도 듬뿍 주셨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터키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며 참 감사한다.

이제는 대답한다.

"하나님! 저도 가라구요? 예!"

부족함이 능력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정 연 옥 (청년1부)

여름휴가가 나홀인 나에게 열흘 이상을 내야만 갈 수 있는 단기 선교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청년부 안에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일 주일간의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CMTC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가보고 싶다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팀이 구성되고 팀별 모임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팀별모임을 갖고 나면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확신이 없었다. 지상명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 개인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확신하며 나아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겠노라고 결정할 때까지 기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나의 한 순간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 같아 불안했다. 그리고 낯선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급기야 선교준비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둘 생각이 많아지면서 선배와 상의를 했고, 이 문제를 두고 한 주간 다시 기도해 보기로 했다. 일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셨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한 줄기 빛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단기선교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준비에 임했다. 준비하면서 참으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더 확실히 보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금요찬양집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던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나 역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즈벡을 향해 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이 마음 한쪽에 걱정과 근심의 싹을 낳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 형편, 상황을 다 알고 계심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쓰시고자 하심을 보았다.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소망도 없다. 오직 그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작은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젠 두려움보다 소망이 생긴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사용하실 그분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이다.

비록 어눌하고 서투른 짧은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길 기대한다.

간증과 나눔

구역장 영성훈련

비를 내리지 말라

14교구 하안 1, 2구역
구역장 이미숙, 고진순 집사

우리 안에는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 말씀의 열매 맺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구역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누었다. 그것은 순종과 겸손, 열심히 전도하는 것 등이라고 나누었으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열매 즉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개인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은혜의 비가 넘쳐 남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자고 권유하고는, 구역원들 서로에게서 받은 은혜의 영향들을 칭찬했다.

구역원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비들을 나누었는데, 은혜의 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린다는 것이 공통적인 고백이었다. 한 성도는 친구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졌는데 그로 인해 외로움을 많이 탔었으나 스바냐 3장 17절(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외로움을 벗었다고 고백했고, 또 한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아 자신을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핍박을 멈추고 신앙을 인정해 주었다고 간증했다.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라 1년 동안 교회를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 성도의 큰 기도 제목이다.

구역원들은 이처럼 세상의 부유함이나 명예를 은혜의 비라고 착각하지 않고 진정한 은혜의 비를 알고 있었다. 외로움과 핍박이 어찌 은혜의 비란 말인가? 그것은 그 외로움과 핍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포도나무의 열매 역시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으리라.

(권요셉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손창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시댁이 모두 기독교인임에도 저는 장사하느라 늘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나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임종하시면서 제가 믿지 않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시댁 형님이 충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 집도 논현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던 첫 날 교회의 깨끗하고 웅장한 모습에 놀랐고, 예배할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닿아 내가 올 곳에 온 것 같아 감사했으며 늦게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도 6개월 째를 맞게 되는데, 집회 때에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가족부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늘 읽어야 한다고 하셔서 지난 4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3장씩 꼭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숙 정 (새가족부 통신원)

[한국 교회사]

희년잔치와 신사참배, 그리고 해방

한국교회는 1933년부터 선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행사를 준비했다. 장로회는 의료선교사 알렌의 내한일인 1884년 9월20일을, 감리회는 일본주재 선교사 매클레이의 내한일인 1884년 6월24일을 기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리회는 1934년 6월19~20일 서울에서, 장로회는 1934년 9월8일 평양 숭실학교 운동장에서 기념예배를 가졌다.

이밖에 장로회 선교사 17명은 개척 선교사와 역사가들의 강연, 연구발표와 토론 등의 내용을 엮어 50주년사를 펴내기도 했다. 교회사가들은 두 교파의 희년행사에 대해 "선교사의 도착을 기점으로 삼은 선교사적 관점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며 "결국 선교사들의 잔치로 끝났고 한국교회의 자기반성을 기초로한 주체적 선교의식 함양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1934~35년에는 또 '보수 대 자유'의 신학논쟁이 본격화됐다. 특히 장로회는 여권문제와 창세기 모세저작 부인문제, 신편찬송가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북계와 비서북계 목회자들의 교권 분쟁도 표면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교회 분위기는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른 바 '내선일체론'에 따른 창씨개명과 징용, 공출 등은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바로 신사참배였다. 1938년 조선총독부는 신사에 대한 참배만이 아니라 일본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도록 요구하는 동방요배, 일본국기 게양 요구, '황국신민서사'라는 일본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문의 제창 등을 요구하였고 당국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치할 것 등 기독교의 변절을 강요했다. 일제의 강력한 정책은 결국 교회를 넘어뜨렸다.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천주교 · 감리회 · 성결회 · 구세군 · 성공회 등 대부분의 교파들이 일제에 굴복했다. 장로회도 1938년 9월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굴욕과 탄압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신사참배 반대운동도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가 1938~44년 4차례에 걸쳐 7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했다. 신사참배 거부로 2천여명이 투옥됐고 2백여 교회가 폐쇄됐으며 50여명이 순교했다. 일제의 강요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를 찬양한 일부 기독교인사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기독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을 지키며 해방을 맞았다.

다음주일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작가인 윌 마틴 톰프슨이 1904년에 작시 · 작곡한 것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였다.

이 찬송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내용을 고백하기 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만나는 주님을, 성도의 삶에 와 계셔서 슬픔을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동행하시고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 갈 이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양위원회)

양호실

1교구 이해철 성도(남39세) 위암, 간암 말기로 경과가 좋지 않아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믿음으로 평안할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교구 박재영(남 초등학교 5학년) 교통사고로 머리에 피가 고였습니다. 한 달 후 경과를 재검사할 예정입니다. 머리 속이 깨끗해져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선진 성도(남74세) 위암 3기로 수술을 시도했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초신자인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문홍구 장로(남66세) 위에 출혈이 있었는데 근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4교구 한길수 성도(여68세) 암으로 상태가 위독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환우와 가족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소중함

김 명 희 (에바다부)

복음을 알게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주님은 제게 정말로 귀중한 보석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무수히 많은 고생으로 엮어진 저의 초라하고 서글픈 이야기들이 이제는 어쩌면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고마우신 주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기쁨보다 슬픔이, 행복보다 불행한 시절이 더 많았었고 그래서 제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고생만 하신 저의 부모님 역시 살아생전 저에게 한 평생 삶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듣지 못해 남들에게 따돌림도 당해봤고, 어려서부터의 고질병이었던 신부전증으로 늘 바깥세상보다 집 안에 갇혀서 누워 있을 때가 많았으며, 오로지 부모님께 전부 의지한 채 무엇 하나 제 스스로 할 수 없어 차츰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로 인해 늘 고생만 하시고 병수발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몹쓸 종교란 종교는 다 돌아다니시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도 철딱서니 없이 이끌려 다녔지만 병세는 더 깊어지고 어머니는 가슴만 치셨지요. 하나뿐인 동생은 학교도 중퇴한 채 가출하고 아버지는 실업자로 전락하시어 늘 술로 밤을 지새우셨고 풍비박산 난 저희 집은 어머니마저 무서운 암이란 질병 속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어려운 숙제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늘 시험이 닥치지요. 그 옛날 주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처럼 우리는 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자신이 없었지요. 왜 난 주님에 관해서 언제나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살까요?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늘 주님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날 괴롭혔고 신앙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자꾸만 내 자신을 가둬두고 주님을 나의 밖으로 멀찌감치 두려했습니다. 욥이 당했던 시련처럼 제게도 그런 시련이 닥친 것인지, 점점 힘들고 어려워만 가는 저희 가정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임종을 앞두시기 전부터 영혼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제가 그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허락 안하시던 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늘 주님만 찾으시고, 기도하시다가 편안히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전 아마도 그 때 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여 현실에 치우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속속히 다 드러나 내 눈에 보이는데도 전 모르는 척하고 의심하며 제 자신을 차츰 가둬만 두었던 것입니다. 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어머니로 인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 어느 몸 한 구석이 망가져도 이렇게 숨을 쉬며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 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말을 못해도, 보지 못해도, 서로의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다면 주님께서는 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못 다한 말 모두 주님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항상 은혜로 절 지켜주시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에바다부의 천사 같은 형제자매님들과 한 식구처럼 잘 지내게 해주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전 정말 행복합니다. 외롭지도 않고 과거 속에 얽매이지 않으며 천국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주심을 큰 은혜로 여기면서 하루하루 축복 속에 살려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천사들

김 수 미 (사랑부 교사)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 싫은 사람을 만나도 웃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무관심한 척 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 사랑부 지체들은 이런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때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난 가끔씩 사랑부 지체들과 눈 맞추는 게 두려울 때가 있다. 겉모습과 다른 내 마음들을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사랑부 지체들이 그런 것들을 더 나은 것인 줄 알고 배우려고 할지도 몰라서이다.

주일이면 만나홀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내게 맡겨진 여러 지체와 함께 걷노라면, 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청한다. 전혀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태반이고 알아도 반기지 않는(?) 교우들도 가끔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는다. 반가우니 달려가고, 기분 좋으니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좋으니 웃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 박수치고 소리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으니 주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1-2시간씩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는 매주 속마음과 겉표현이 같은 그 천사들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배운다.

믿음의 학교에서 놋뱀 & 십자가

민수기 21장은 아랏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1-3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불평합니다. 항상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4-5절).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 나온 습관적인 불평이었습니다(출 14:11-12; 16:3; 17:3).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마르게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6절). 하나님께서 죽음의 벌을 내리시자, 백성들이 회개합니다(7절). 불뱀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회유와 권면의 채찍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을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잠 3:12, 히 12:5-13).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8-9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 구원의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듯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놋뱀을 보면 산다고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권향임 기자)

교 회 소 식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17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0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18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0호
3. 봉사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봉사위원회실
4. 찬양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찬양예배 후
장소 : 찬양위원회실
5. 권사 2 · 3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 수요나무예배 후
장소 : 갈릴리홀

남녀전도회

1. 바울 1지회 월례회
일시 : 22일(토) 19:00
장소 : 동문경비실 앞
2. 바울 2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 301호
3. 바울 6지회 월례회
일시 : 22일(토) 18:00
장소 : 박춘근 집사댁
4. 바울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베다니홀
5. 바울 10지회 월례회
일시 : 22일(토) 18:00
장소 : 산수정(☎955-6539)
6. 바울 1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 307호
7. 바울 1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교구모임장소
8. 바울 1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복지관 지하2층
9. 베드로 6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화) 19:30
장소 : 김현철 집사댁
(☎403-0780)
10. 베드로 9지회 월례회
일시 : 23일(목)부터교구모임 후
장소 : 8-9부교사실
11. 베드로 12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12. 요한 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 401호
13. 요한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 5층
(청년부 집회실)
14. 요한 1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9:00
장소 : 용신 동원동 현대홈타운 2차 202-203(☎264-8891)
15. 한나 1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갈릴리홀
16. 한나 1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갈릴리홀
17. 에스더 1지회 월례회
일시 : 17일(월) 11:00
장소 : 동문경비실앞
18. 에스더 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예수라기홀
19. 에스더 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관 401호
20.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관 407호
21. 에스더 8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관 507호
22. 에스더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베다니홀
23.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관 212호
24. 에스더 1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탁아부실
25. 에스더 1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제교육관 204호
26. 에스더 1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갈릴리홀
27. 에스더 1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복지관 지하2층
28. 루디아 4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목) 11:00
장소 : 능보리
29. 루디아 5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화) 11:00
장소 : 앙나무실
30. 루디아 7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화) 11:00
장소 : 둔촌 대림 식당
31. 루디아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베다니홀
32. 루디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화) 10:30
장소 : 영락기도원
33. 루디아 13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목) 11:00
장소 : 손유미 집사댁(강서구 화곡본동 772-60 오성하우스 3층 ☎2663-7741)
34. 루디아 1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갈릴리홀
35. 루디아 16지회 월례회
일시 : 17일(월) 11:00
장소 : 갈렐산 기도원
36. 미리아 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갈릴리홀
37. 미리아 6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화) 11:00
장소 : 장혜선 집사댁
(수정동23-1105)
38. 미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화) 10:30
장소 : 영아부실
39. 미리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화) 10:30
장소 : 김은실 집사댁
(☎574-4910)
40. 미리아 17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목) 11:00
장소 : 용신시 동원동 동원아파트 현대홈타운 2차 202-203

2002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6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준경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반?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반? (이중태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6월 23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다음주 새벽기도회 담당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주일)
설교자	여성기	류병희	노경목	이종철	이유진	안창덕	고광환
기도자	신상수	박종헌	박문태	박장서	금호탁	최효섭	김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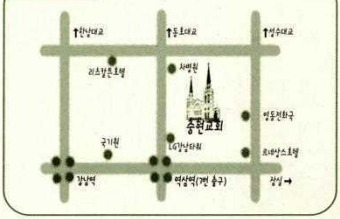
권사 수련회

일시 : 24일(월)~25일(화) 10:00 장소 : 갈릴리홀

정기 제직회

일시 : 23일(다음주일) 찬양예배 후 장소 : 본당

교회 오시는 길



별 세

1. 김추월 성도
최명득 권사의 모친, 17교구 죽전(구역) / 9일 별세, 11일 장례

교회주변 전도 실시

6월 전교구 교회주변 전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여전도회 : 19일(수) 수요1부 예배 후

남전도회 : 22일(토) *(오후 2:20 여 나사렛홀에서 기도회 후 각 장소로 흩어짐)*

전도장소 : 이미 배정된 지역의 상가나 주택가 공략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안내실(만 60세 이상) · 음향실(만 50세 이상) · 어린이집(보조교사)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4. **문의** ☎ 552-8200

충현교회

예 배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욕, 화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화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불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 내

집 회	시 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버스 :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1:00	버스 :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 월, 목 오전 10:00 / 월, 화, 목, 오후 7:00 (동문경비실 앞 출발)		

충현중보의 창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6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2002년도 후반기 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0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한 중 ·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서류접수 : 2002년 6월 23일(주일)부터 7월 14일(주일)까지 3주간

3. 신청장소 : 교육국

4. 문의 : 교육국 (☎552-8200 교472)

2002 외선부 의료선교의 날

국내외국인 선교부에서는 외국인 형제자매들에게 의료선교부의 지원으로 외선부 의료선교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의료진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행사에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오늘 10:00~16:00 장 소 : 아멘홀(본당 지하1층)

진료과목 : 내과, 외과, 부인과, 안과, 치과, 한방과 대 상 : 외국인 형제 자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23	이인숙	1	청년2부		433	한경애	9	청년2부	김주숙(9)
424	조우정	1	청년1부	이민재(10)	434	백윤진	11	고등부	이미선(2)
425	탁순자	2	청년2부	조성희(2)	435	조성란	11	무디아	
426	김은정	4	청년1부		436	손수권	11	바울	
427	임명옥	7	청년2부	윤홍자(7)	437	손은정	11	대학부	
428	한유경	14	마리아		438	김상희	19	청년2부	황선혜(6)
429	서항석	11	요한		439	박보람	19	고등부	
430	장은미	5	청년2부		440	왕석미	19	청년2부	
431	김춘호	8	청년2부	김선미(8)	441	왕남희	19	청년1부	
432	김은주	8	청년2부	김선미(8)	442	김병진	3	베드로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김은호 성경연구원장, 노광현 당회 서기, 오진국 17교구장, 이병학 교구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봉사위원장, 임필성 장년1부장, 강모용 구제부장, 오정현 제3교육위원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3교구장, 정운석 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조인제 유아원장, 김종구 장년2부장, 최무길 건축위원, 김천채 협동목사안정대표, 이창호 사진부장, 차신득 방언운영위원, 박영식 예배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기획위원장, 윤성철 기획위원, 이하영 전도위원장, 이병옥 감사위원장, 안종옥 기도원장, 임무천 제2교육위원장, 이종섭 제1교육위원장, 최기홍 성례부장, 이갑재 15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진홍렬 직능전도부장, 이정우 세기축하장, 김단용 14교구장, 황영일 건축위원, 한송규 신호기점부장, 김영수 정보시스템부장, 정홍식 전도위원, 김환기 9교구장, 원용철 12교구장, 이형수 당회부서기, 안동현 이벤트연맹대표, 황의만 소모부장, 김구형 고등부장, 최윤덕 장년1부 협의부장, 이계인 실버프렌즈대표, 박덕양 안내부장, 이태식 청년2부장, 정태두 탁아부장, 박홍규 기쁨의별한영대표, 권명옥 분쟁조정대표, 조종환 예배디자인, 배춘식 청년1부장, 김영달 행정위원, 이신호 중등1부장, 박찬섭 유치부장, 최지윤 예배위원, 노영한 소년부장, 박철구 중등1부장, 정청길 초등부장, 신상수 영아부장, 강철형 유년부장, 고재승 중등2부장, 김영은 유아부장

■ 부목사

이준대 스승부, 정현민 1교구, 김동하 기획위원장, 차병준 선교위원장, 김병태 15교구, 서광진 5교구, 정해성 3교구, 이준경 9교구, 박인기 예배디부, 여성기 10교구, 류병희 대학부, 노경목 17교구, 이종철 11교구, 김영훈 고등부, 여국근 12교구, 김교성 16교구, 송길환 외선부, 이수근 8교구, 유유진 청년1부, 안창덕 13교구, 방준영 4교구, 나광영 6교구, 정진호 7교구, 김용덕 2교구, 이성욱 소년부, 고광환 14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강 도 사 이정철

■ 여전도사

정연희 14교구, 김정자 3교구, 송향자 17교구, 신동자 5교구, 윤인숙 1교구, 김옥윤 9교구, 한영준 11교구, 김연식 2교구, 홍순애 6교구, 이옥주 4교구, 김말자 8교구, 안태순 7교구, 최효섭 15교구, 김정연 10교구, 조옥자 19교구, 강덕필 16교구, 김정신 12교구, 장혜구 19교구, 최문실 13교구

■ 교정전도사 박양덕

■ 선교전도사 정은희

■ 단기선교사 강기엽(스리랑카)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랑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